

구분	조수입			경영비	생산비	소득	순수익
	주산물	부산물	소계				
2014	2,131,584	0	2,131,584	933,792	1,450,560	1,197,792	681,024
2015	2,242,646	20,990	2,263,636	965,534	1,493,006	1,298,102	770,630
평균	1,847,327	6,360	1,852,961	670,796	1,128,568	1,182,164	724,393
연평균증감률	5.0	-14.2	5.0	3.8	2.8	7.4	16.2

배추 생산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자가노력비로 전체의 28.0%를 차지하였다. 그 다음으로 고용노력비, 무기질비료비, 대농기구상각비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.

<표 3-3-2> 최근 5개년 기준 생산비 세부항목의 비중

(단위 : 원/10a)

순위	구분	평균생산비	비중
1위	자가노력비	398,588	28.0%
2위	고용노력비	146,091	10.3%
3위	무기질비료비	124,920	8.8%
4위	대농기구상각비	124,705	8.8%
5위	유기질비료비	103,327	7.3%
6위	토지자본용역비	93,395	6.6%
7위	농약비	90,841	6.4%
8위	임차료	85,792	6.0%
9위	제재료비	80,319	5.6%
10위	종자/종묘비	77,247	5.4%
11위	광열동력비	27,078	1.9%
12위	영농시설상각비	19,072	1.3%
13위	고정자본용역비	17,233	1.2%
14위	수선비	14,656	1.0%
15위	위탁영농비	9,670	0.7%
16위	유동자본용역비	6,335	0.4%
17위	소농구비	2,155	0.2%
18위	수리비	1,442	0.1%
19위	수선비	1,125	0.1%
합계		1,423,991	100.0%

생산비 기준 상위 7개 항목은 모두 증가추세에 있고, 전체 생산비에서 76.2%를 차지한다. 토지자본용역비의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.

<표 3-3-3> 배추 생산비 기준 상위 7개 세부항목의 변화율

(단위 : 원/10a)

순위	세부항목	최근 5개년 평균		변화율	
		금액(원)	비중	연평균	2014 vs. 2015
1순위	자가노력비	398,588	28.0%	2.3%	-3.6%
2순위	고용노력비	146,091	10.3%	2.6%	-3.1%
3순위	무기질비료비	124,920	8.8%	5.3%	-8.0%
4순위	대농기구상각비	124,705	8.8%	1.5%	-4.3%
5순위	유기질비료비	103,327	7.3%	4.4%	2.4%
6순위	토지자본용역비	93,395	6.6%	6.0%	-7.9%
7순위	농약비	90,841	6.4%	0.9%	14.2%